

법헌 스님의
만다라&수행

항삼세명왕



지명원의 5대 명왕 중의 하나로서 몸의 색은 청흑색이고, 얼굴은 3면이고 얼굴 각각에 3개씩 있으며, 송곳니를 드러내고 있고, 손은 8개가 있으며, 각 손에는 중생을 제도하는 도구를 가지고 있다. 항삼세는 대일여래의 교칙에 따라 금강살타 몸으로서 항삼세명왕으로 변화하여, 자기(대자재천) 스스로가 삼계(三界)의 주인이라고 자처하여 교만(驕慢)을 부리는 대자재천과 대자재천비를 짓밟아 혼을 내주어 삼독(三毒)을 항복받아 불교에 귀의하게하고, 항삼세의 양쪽 두 발(양족, 兩足)은 선정과 지혜를 의미한다. 이 수행은 탐, 진, 치 삼독을 물리치는 수행이다.

〈동방불교대학 실담학 교수〉



보리수아래의
부처님 품안에서
⑨ 뇌병변장애인 우창수 씨

"막연한 응원보다 능력 인정이 더 필요"

오랜만에 방송작가와 웹툰 작가로 1인 2역을 하는 뇌병변장애인 우창수 씨의 집에 전화를 했다. 어머니의 안부를 묻고 창수 씨의 근황을 상세히 듣고 싶은 마음에서였다. 보리수아래의 장애인들이 그렇듯 창수 씨도 중증 뇌성마비인이다. 시나리오 작가와 웹툰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다. 누군가는 '언어장애에 팔과 손이 매우 부자유스러운 중증 뇌병변장애인이 시나리오 작가, 웹툰 작가를 한다고?' 물을지도 모르겠다. 사람들은 자신의 눈높이에서 장애인들의 능력과 재능을 한정 짓곤 한다. 하지만 장애인 중에는 창수 씨처럼 흔히 생각할 수 없는 직업과 작가활동을 하는 이들이 많다. 편의시설과 일상에서의 편견보다 더 큰 것은 "그것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능력 한정의 편견이다.

창수 씨는 대학 졸업 후에 방송아카데미에서 시나리오 작가 공부를 하고 1998년 KBS 라디오드라마 '무대' 작가를 시작하여 라디오 드라마만 20편을 썼다. 라디오드라마 외에 희곡, 소설, TV 드라마 별순검 시즌 3의 7화 사단칠정 집필 등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해오며 2013년 첫 시나리오 집 '내 손가락 끝의 지옥도'를 발간하였다. 이 시나리오집에는 지옥도, 현상학, 낯선 거울, 탈의 관음도 등 총 4편의 작품이 담겨있다.

그 중 창수 씨가 애정을 두는 작품은 "지옥도"다. 이 작품은 고구려 시대에 에어리언 같은 괴물이 싸우는 이야기로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자신을 감정이입 시킨 작품이라고 한다.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괴물이야기를 좋아했다는 창수 씨는 괴물의 모습이 이쁠 리는 없지만, 괴물은 자신이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창수 씨가 시나리오를 공부하는 과정은 어렵지 않았지만 영화 쪽 실전에서는 문턱이 높았다.

완성된 작품을 제작사 여러 군데 보내면 내용이 좋다고 하여 힘들게 찾아가면. 계속 퇴짜를 맞았는데 제작사 측에서는 장애가 이유가 아니라고 했지만, 장애가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시나리오 작업을 하게 되면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해야 함에 심한 언어장애로 소통이 어렵다 보니 작가로서 좀 더 성장하기 힘들었다는 것이다.

말 한마디 하려면 온몸이 경직되고 표정도 일그러지는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타 장애보다 사회활동에 더 제약을 받고 차별을 받는 경우가 많다. 창수 씨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창수 씨는 여전히 시나리오를 쓰고 있으며 장애인영화제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창수 씨는 웹툰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웹툰이 뜨기 시작한 세대에 웹툰으로 꿈을 하나 더 만들었다. 웹툰에서 인기를 끌면 드라마, 영화, 소설로 만들어지고 웹툰과 드라마 시나리오는 서로 관련이 깊기에 시나리오 작가인 창수 씨에게 웹툰작가도 잘 어울린다. 2018 한일웹툰공모전 스토리 부문에서 피추천인의 스토리 '저승에서 이승에서'가 당선되어 웹툰 작가로서 인정을 받았다.

오늘도 들어가 본 창수 씨의 작은 블로그에는 최근까지 꾸준히 작품이 올라오고 있다.

"손가락 하나로 천하를 얻으려다 관절염만 얻다. 그래서 그래도 나는 작가다"라고 소개한 프로필 속에는 시나리오를 향한 오랜 집념과 그 만의 철학이 그대로 묻어 나온다.

방송작가 · 웹툰 작가인 뇌병변장애인 창수 씨 외에 보리수아래 회원 중에는 유튜브 활동을 비롯한 시대의 트렌드에 맞춰 활동을 하는 이들이 여럿 있다.

많은 사람들은 장애인을 향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말로 응원을 한다. 그러나 막상 장애인과 일을 함께 하게 되었을 때 그의 능력을 바로 인정해 주는 경우는 드물다. 특히 여러 장애가 중복된 뇌병변장애인들은 그 능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4차 산업사회로 가는 이 시점에서 장애인을 복지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그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 발전 등 더 발전할 산업사회에서는 장애인에게 가장 문제가 됐던 이동, 접근성 등이 자유로워져서 '장애'가 큰 장벽이 되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불교에서 장애인을 보는 시각도 변화하는 사회와 불교 트렌드에 장애인들이 먼저 발 맞추어 가고 있음을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 시혜 대상으로의 장애인 포교가 아니라 장애인들을 포교프로그램에 참여시켜 장애인포교 트렌드를 만들어가도록 지원해야 한다.

〈최명숙 보리수아래 대표〉



방송 작가와 웹툰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뇌병변장애인 우창수 씨.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 (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천광수련원 TEL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